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eui

약력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주제별 촬영 포인트

문화시설들의 촬영

현대건축의 흐름 속에서 문화와 관련된 여러 시설들 중, 이들 건축물들이 갖고 있는 건축적 특징에서부터 건축 재료들에 따라 연구와 이해를 함으로써 더욱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마감 재료들에 따른 노출의 변화에서 문화시설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벽돌과 같은 빛을 흡수하는 석조재료, 빛을 반사하는 하이테크한 스테인리스와 같은 강철이나 유리와 같은 반사 재료들을 촬영하는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이해해야 한다.

문화시설들에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예식장, 극장 등 여러 시설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사진촬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전시중인 미술관이나 공연 중인 음악회나 연극을 하는 행위 등 여러 장르별로 문화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건축물들을 촬영하는 데는 몇 가지 알아야 될 문제들이 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그림이나 유물들이 많아 사진촬영 하



1. 아이레벨로 와이드렌즈를 사용한 명동성당의 경우 건물이 넘어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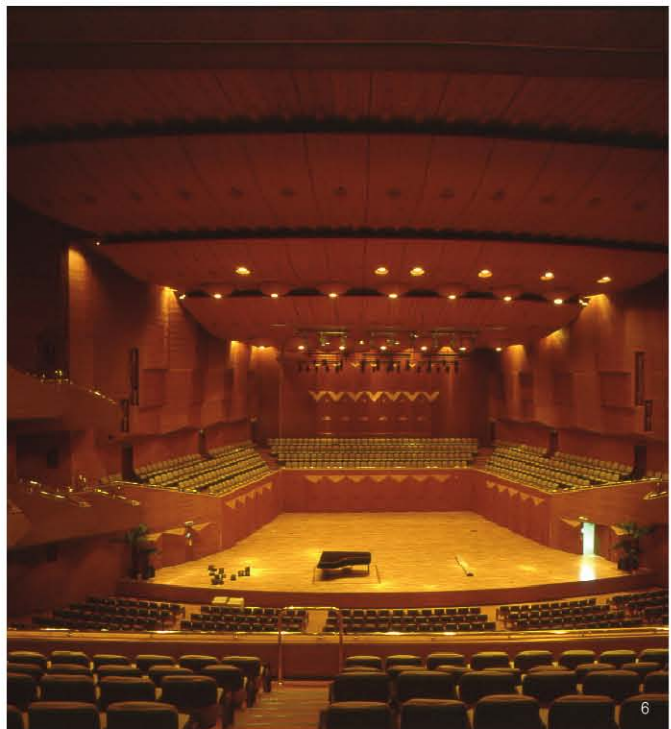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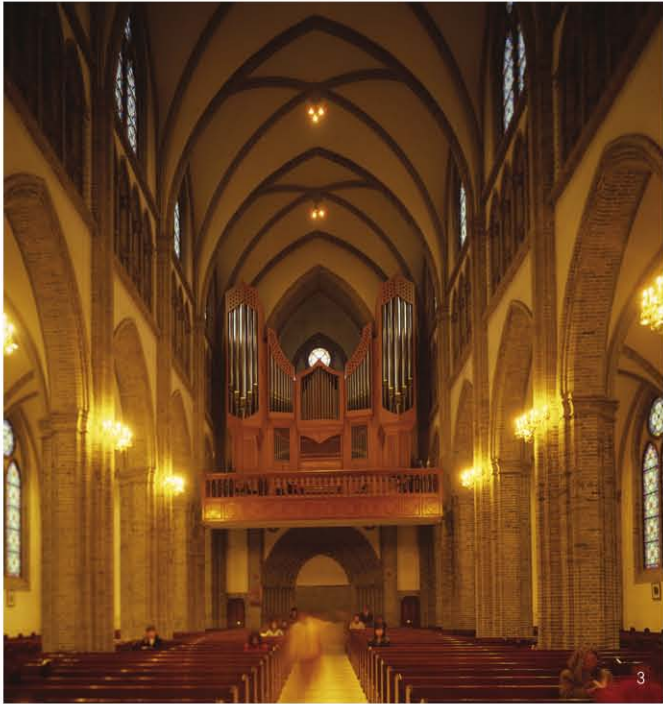
2. 대형카메라를 사용한 명동성당 전경

는데 매우 까다로운 절차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는 촬영하기 어려운 일이 종종 생긴다. 일일이 플래시나 스트로브와 같은 인공조명들을 사용하여 촬영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급적 실내조명들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이 건축사진에서는 더욱 분위기가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그림이나 유물들을 더욱 사실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여지도록 조명시설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들 조명에 따른 촬영이 요구됨에 따라 조명들에 대한 연구는 더욱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시장에는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는 시간대에 촬영하는 것 보다 휴관하는 날이나 사람들을 피해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부득이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게 조용한 시간을 이용한 촬영방법을 이용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시장의 내부 촬영에서 톱 라이트나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빛을 이용한 경우와 외부의 빛들이 실내조명들과 조화를 이루어 혼합된 조명으로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순전히 인공조명인 텡스텐 조



3. 명동성당 파이프 오르간 4. 명동성당 스테인드글라스 5. 성공회 내부전경 6. 예술의 전당 내부 모습

명을 이용한 촬영방법 중에는 각기 서로 다른 분위기의 사진들이 보여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원색적인 색깔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지만 실내조명이 텅스텐 조명이나 형광등 하에서는 전혀 다른 색깔이 나타나게 됨으로 텅스텐 조명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름을 선택하여 촬영하든지 코닥 80시리즈 필터나 형광등 하에서 사용하는 FL필터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이 더욱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데

일라이트 타입의 필름을 사용하여 촬영하게 됨으로 실내전체가 더욱 붉은 색조를 보여 지는 것은 이러한 필름의 선택이 잘못된 결과이기도 하다.

음악당이나 공연장도 비슷한 경우지만 관람석보다 공연하는 쪽의 실내조명들이 더욱 밝음으로 이에 대한 보정노출을 필요로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공연장들의 사진들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촬영 협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내부의 조명등을 전부 켜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전시장이나 공

연장의 모습들을 한두 장 스케치하는 경우 플래시나 스트로브를 사용하지 않고 느린 타임을 이용해 촬영하는 일은 세심한 주의력이 요구된다.

문화와 관련된 건축작품들은 다른 건축물보다 더욱 다양하게 형성된 많은 구조적인 요소들이 있어 사진으로 촬영하는 데에는 다양한 모습들의 사진들이 표현된다. 그렇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건축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진으로 찍는 일은 건축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외부형태의 다양한 모습들을 찍는다고 모두가 다 좋은 사진이 될 수 없듯이 그들 나름대로의 건축적 특징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사진가는 건축사 못지않게 건축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되는 것이다. 모든 건축물들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모습들이고 이에 따른 빛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우선 촬영하기 전에 건축사와 만나 의논한다든지 배치도를 보면서 하루의 빛의 이동을 연구하며 촬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종교건축물의 촬영

우리나라에는 각종 종교시설물들이 있다. 불교건축의 사찰건물에 서부터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종교적인 시설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건축물들은 종교적인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엄숙한 예식을 거행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공간들은 거대한 홀로 형성되어있다.

실내의 홀은 대부분이 어두운 분위기로 인해 소형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 플래시나 스트로브 조명을 이용한다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촬영하기란 어려움이 따른다. 가급적 노플래시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거대한 홀과 같은 분위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카메라 기종에 따라 렌즈도 가급적 와이드렌즈를 사용해야하는데 소형 카메라인 경우 24밀리에서 28밀리 정도의 초광각 렌즈들을 사용할 수록 전체적인 실내를 보여 줄 수 있다. 건축사진에서 가끔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사진과 실제의 모습이 달리 표현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초광각 렌즈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 때문에 작은 규모의 홀이라도 더욱 넓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는 사진의 장점이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건축사의 작품보다 사진가에 의한 재창작의 연출로 한결 돋보여 많은 건축사들이 더욱 사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거대한 홀의 내부 촬영에서 대부분 와이드렌즈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넓게 보여지게 됨으로 가끔 공간의 크기나 스케일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촬영시 한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내부공간을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종교시설들에서 대개 하늘로 높이 치솟은 외형의 모습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위로 쳐다보아야 할 정도로 높게 지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건물들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소형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넘어지지 않게 건물을 찍으려면 피시렌즈를 사용해야 바로 세워져 있는 모습대로 찍을 수 있는 것이다. 사진을 촬영하는 많은 이들이 와이드렌즈를 사용해도 건물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인 와

이드렌즈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건축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대형카메라인 뷰카메라를 이용함으로써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좋은 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피시렌즈가 없으면 건물 높이만큼 거리를 두고 와이드렌즈로 촬영한 후, 아래 부분을 트리밍하여 사용 할 수도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게 권장할 일은 아니다.

또 다른 촬영방법을 생각하면 같은 레벨의 중간정도의 위치를 선택하여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것으로 주변환경과의 분위기를 담아 낼 수 있다. 종교시설의 외부 모습들은 어느 정도 좋은 빛을 받는다면 누구나 촬영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대낮에 촬영할 때와는 달리 저녁 무렵에 촬영하는 것도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실내의 엄숙한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오피스나 공공건물들과는 달리 실내의 조명들을 이해해야 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조화를 파악해야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주교 성당내부의 제대주변과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들을 이용하여 촬영할 때 더욱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 종교시설들은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여러 요소들을 포함한 특징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종교시설 안에는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은 창문들이 있는데 이를 촬영하는 경우 노출의 변화와 외부의 빛의 밝기에 따라 스테인드글라스의 특징을 표현해 줄 수 있다.

대낮의 외부가 밝을 때 보다 저녁 무렵 안과 밖이 같은 빛의 광량을 보여줄 때 더욱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으므로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리라 본다.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할 때와 실내조명등을 이용할 때의 차이점도 연구해야 한다.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의 빛을 그대로 이용해야 하지만 부득이 해가 넘어가고 실내 조명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백열등의 조명과 형광등의 조명들에 대한 색보정 필터를 이용해야 더욱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